

‘CON-DP-predicative XP’ 절대절에서 CON의 통사 범주에 관한 연구*

심 상 완
단국대학교

심상완(2018), 「‘CON-DP-predicative XP’ 절대절에서 CON의 통사 범주에 관한 연구」, 이베로아메리카연구, 29(3), 165-203.

초 록 스페인어에는 두 유형의 절대절이 존재한다. 하나는 ‘XP-DP(술어-주어)’ 어순의 절대절이고 다른 하나는 ‘con-DP-XP’ 어순의 절대절이다. 본 연구의 목표는 ‘con-DP-XP’ 절대절에서 con의 통사 범주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그동안 절대절에 대한 연구는 주로 ‘XP-DP’ 절대절의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에 관심이 주로 집중되었다. 따라서 ‘con-DP-XP’ 어순의 절대절과 이 절대절을 이끄는 con의 통사 범주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은 매우 적었다. 대다수의 학자들은 con을 전치사로 간주하였다. 본고에서는 ‘con-DP-XP’ 절대절의 con은 전형적인 전치사 con이 지닌 ‘수반’, ‘결부’ 또는 ‘도구’의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con이 전치사가 아닌 다른 범주에 속할 가능성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본고에서는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 con을 전치사로 보는 것보다는 ‘전치사적 보문소(prepositional complementizer)’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끝으로 con을 보문소로 분석할 때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답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con-DP-XP’ 절대절 밖으로 주어가 *qu-*이동하게 되면 소위 ‘보문소-흔적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본고에서는 그 이유가 동사의 보충어로 기능하는 소절(*small clause*)과는 달리 ‘con-DP-XP’ 절대절에서는 소절의 주어가 술어에 선행하는 어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소절 밖으로의 주어 이동은 보문소 con 바로 뒤 위치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보문소-흔적 여과’를 위반하게 됨으로써 비문법성이 초래된다고 설명한다.

핵심어 절대절, 소절, 전치사, 전치사적 보문소, 보문소-흔적 효과

* 본 연구의 초안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신 논평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혹시 있을 수 있는 오류에 대한 책임은 모두 필자에게 있음을 미리 밝힙니다.

I. 서론

1. 연구목표

절대절(Absolute Clause, 이하 AC)이란 주절 술어에 의해 의미적으로 선택(semantic selection)되지는 않지만 주절을 수식하는 부사적 기능을 수행하는 비시제절(non-finite)을 가리킨다.¹⁾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절대절의 정의에 대한 학자들 간의 의견은 별로 다르지 않다.²⁾ Nueva Gramática de la Lengua Española(2010, manual: 734)에 제시된 정의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Las construcciones absolutas son unidades bimembres de predicación que establecen una relación atributiva entre un elemento nominal (raramente oracional) y algún atributo que se predica de él sin que medie entre ellos un verbo. La mayor parte de las construcciones absolutas funcionan como elementos adjuntos que aportan información adicional a la oración principal y constituyen grupos entonativos autónomos, representados en la grafía mediante comas.”

AC는 주절 술어에 의해 의미적으로 선택되는 것이 아니기에 아래에서 보듯

- 1) 필자의 교육 경험에 따르면 ‘절대절’의 정의를 알고 있는 학습자는 드물다. 따라서 절대절에 대한 학습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절대’ 용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시키는 것이라 판단된다. ‘절대’는 ‘주절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며 이 용어는 ‘loosened from/separated’를 뜻하는 라틴어 *absolutum*에서 유래한다(https://en.wikipedia.org/wiki/Absolute_construction). GDLE(1999:2541)에 따르면 주절로부터의 독립이란 억양에 있어 주절과의 단절(ruptura entonacional entre AC/con-AC y la oración matriz)과 통사적, 운율적 단절(desligado sintáctica y melódicamente)을 가리킨다.
- 2) 다만 아래 (i)처럼 명시적 주어를 포함하지 않는 소절을 AC로 볼 것인지 아닌지를 두고서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명시적 주어가 없는 소절을 ‘자유 부가절(Free Adjuncts)’로 부르면서 AC와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도 있고(cf. Stump 1985, Hantson 1992, Hernanz 1991, De Miguel 1992, Hernanz & Suñer 1999) 주어가 출현하지 않더라도 AC로 봐야한다는 주장도 있다(cf. Fernández Leborans 1995, Marín 2002).

- (i) La piscina, *una vez vaciada*, parece más grande.
(Marín 2002:3)

이 AC가 생략되더라도 문장의 문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AC와 주절은 대개 휴지(休止 pause)에 의해 분리된다.

- (1) a. Dichas esas cosas, Antonio se fue.
b. Antonio se fue.

스페인어의 AC는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뉜다. 하나는 (1a)처럼 ‘XP-DP’ 어순으로 이루어진 소절(small clause)이고 다른 하나는 아래 (2)처럼 ‘con-DP-XP’ 어순으로 이루어진 소절이다.³⁾ 이때 XP는 술어를, DP는 주어를 가리킨다. 두 유형 모두에서 술어는 특정 범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 유형(과거분사, 전치사구, 형용사구, 현재분사, 명사, 부사, 유사관계절(pseudo-relatives) 등)의 범주가 술어로 사용될 수 있다.⁴⁾

- (2) a. El jefe está mirando por la ventana con los brazos cruzados.
[past participle]
b. Vi a Pedro con las manos en los bolsillos. [PP]
c. La niña me miró con los ojos llenos de lágrimas. [AP]
d. Salimos del cine con María llorando. [present participle]
e. Con mi primo Pepe (como/de) diputado, toda la familia espera recomendaciones. [NP]
f. He cerrado el coche con el equipaje dentro. [adv]
g. Con Juan que no paraba de toser, la reunión resultó de lo más accidentado. [pseudo-relatives]
((d)-(e) Suñer 1988:85-86; (f)-(g) Suñer & Hernanz 1999:2552)

본고에서 다루게 될 유형은 ‘con-DP-XP’ 절대절(이하 con-AC)이며 구체적으로 con의 통사 범주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3) con이 첨가되었다는 의미에서 흔히 ‘증가된 절대절(augmented AC)’이라 부르기도 한다(cf. Stump 1985:1).

4) 다만 상적(aspectual) 제약은 존재한다. 술어는 완료(perfectivity)나 종결술어(telic predicate), 단계 술어(stage level predicate)여야만 하고 반대로 비완료, 비종결술어(atelic predicate), 개체 술어(individual level predicate)는 출현이 허용되지 않는다(cf. Bruno 2011, Hernanz 1991).

2. 연구 동기 및 선행연구 검토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학교문법(school grammar)을 통해 하나의 어휘가 어떤 범주에 속하게 되는지를 학습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이 어휘의 범주를 “의심”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동일한 어휘의 범주를 두고 학교문법과 통사론(생성문법)의 견해가 서로 다른 경우도 있다. 가령, 영어에서 제한적 관계절을 이끄는 *that*에 대해 학교문법에서는 관계대명사로 가르치지만 생성문법에서는 여러 가지 경험적 근거 제시를 통해 보문소(complementizer)로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cf. Radford 1988, 1997). 두 입장 중 어느 것이 옳은지는 좀 더 따져봐야겠지만 만약 생성문법의 분석이 옳다면 이는 우리가 그동안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여 왔던 어떤 어휘의 범주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례가 더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con-AC의 con이 과연 전치사인지 아니면 다른 통사 범주인지에 대해 자세한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con-AC의 con이 전치사가 아닐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하는 이유는 위의 (2)와 같은 예문에서 con은 전치사 con의 대표적 의미라 할 수 있는 ‘수반(comitative),’ ‘결부(associative),’ 또는 ‘도구(instrumental)’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Hernanz & Suñer(1999:2549)도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필자의 문제 제기가 터무니없는 것은 아닌 듯하다.

“Nótese que la preposición con en estos casos no tiene un valor propiamente comitativo o instrumental”

이와 같은 점을 근거로 필자는 con-AC의 con이 전치사가 아닌 다른 범주에 속할 가능성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⁵⁾

5) RAE 사전(<http://dle.rae.es/?id=A5cH5M4>)에 제시된 con의 용법을 살펴보면 수반/결합, 도구 이외에 양보, 대조, 조건 등의 의미도 있다.

1. prep. Denota el medio, modo o instrumento que sirve para hacer algo.

2. prep. Antepuesta al infinitivo, equivale a gerundio. “Con declarar, se eximió del tormento.”

con의 통사 범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필자가 선행연구들을 검토해본 바에 따르면 이 주제에 대한 스페인어권 학자들의 연구가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스페인어의 AC에 관한 연구는 주로 ‘XP-DP’ 어순의 AC가 어떻게 도출되는지, 내적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상적 해석(aspectual interpretation)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에 집중되어 있었다(cf. 유은정 2004, 2013, Hernanz 1991, Gunnarson 1994, Fernández Leborans 1995, López 1994, Suñer 1988). 반면, con-AC는 ‘XP-DP’ 어순의 AC를 다루면서 잠깐 언급하는 정도에 불과해서 예를 들어 De Miguel(1992)은 con은 T에 시제 자질을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며 López(1994)는 아래에서 보듯이 전치사 con이 AC의 핵인데 con이 지닌 [absolute] 자질이 con을 상위의 핵 Aspect로 이동하게끔 한다고 주장한다.

- (3) a. Con el niño enfermo, no se puede trabajar.
b. [Asp con_[absolute]i [PP *t*_i [AgrAP el niño enfermo]]]

비록 Suñer(1988), Fernández Lebroans(1995)는 con-AC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편이지만 이들 역시도 con의 범주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 없이 그냥 전치사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Suñer(1988:100)는 con은 소절을 보충어로 취하는 전치사로서 시제동사가 결여된 소절의 주어에게 격(Case)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는 정도의 언급만 하고 있다.

“La preposición *con* habilita un entorno adecuado a la predicación, ofreciendo a un SN, argumento externo de un predicado secundario, una marca de Caso abstracto.”

3. prep. Expresa las circunstancias con que se ejecuta o sucede algo. “Come con ansia.”
4. prep. a pesar de. “Con ser tan antiguo, lo han postergado.”
5. prep. Contrapone lo que se dice en una exclamación con una realidad expresa o implícita. “¡ Con lo hermosa que era esta calle y ahora la han estropeado!”
6. prep. Juntamente y en compañía.
7. prep. Expresa condición. U. frecuentemente seguida de una oración introducida por que o por un infinitivo. “Con que estudies un poco, aprobarás.”

Nueva Gramática de la Lengua Española(이하 NGLE, 2010:733)에서도 con의 범주 문제에 대한 언급 없이 그냥 전치사로 보면서 수행하는 문법적 역할만 간략히 소개하는데 그치고 있다.⁶⁾

“La preposición introduce una secuencia bimembre de naturaleza proposicional que denota cierto estado de cosas”

II. 보문소 vs. 전치사

앞서 지적한 것처럼 국내의 스페인어 연구자들 중에는 con의 범주적 정체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한 선행 연구를 찾기가 쉽지 않다. 반면에 영어의 경우는 ‘with-DP-XP’ 어순의 절대절(이하 with-AC)에서 with의 통사 범주가 무엇인지를 둘러싼 일부 학자들 간의 논쟁이 있었다(cf. 임창국 2007, 김성욱 2008). with-AC는 주절을 수식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다양한 범주가 술어로 사용될 수 있으며(cf. McCawley 1983), 술어의 주어와 주격 형태를 취하지 않는다는 점(cf. Hantson 1992), with는 con에 상응하는 어휘라는 점 등에서 con-AC와 유사한 점이 매우 많다. 따라서 with-AC에서 with의 통사 범주가 무엇인지를 둘러싼 논쟁을 살펴보는 것은 con의 범주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되리라 보고 이들 논쟁의 핵심 부분을 먼저 살펴본 다음 con의 범주에 대한 필자의 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6) 필자의 교육 경험에 따르면 학부 과정의 학습자들은 con-AC의 의미를 이해하고, 스페인어로 작문하는데 있어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그 이유는 한국어로는 대개 ‘~인 상태로/~인 채로/~해 놓고서(예: 창문을 열어놓은 채로/열어 놓고서/열어 놓은 상태로 잠을 자다)’ 등으로 번역되므로 이런 의미를 표현하고자 할 때 ‘con-DP-predicative XP’의 고정된 어순을 사용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즉, 어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이 구문을 정상적으로 학습한 학습자들은 오류를 잘 범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boca arriba/abajo와 같이 con이 필요 없는 경우까지도 con을 사용하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으며 con-AC에서 con이 전치사인 데도 수반, 결부, 도구의 의미가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수행하는 문법적, 의미적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많이 궁금해하였다. 따라서 교수학습 관점에서도 con의 범주적 정체 규명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임창국(2007)

with-AC의 with가 어떤 통사적 범주에 속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킨 계기는 Siegal(1983:184)이 제시한 아래 두 예문의 문법성 대조이다.

- (4) a. Who did he die with *t*?
b. Who does Jill perform with *t*?
c. Who is Grace sitting with *t*?
- (5) a. *What does Jill perform with *t* up?
b. *What is Grace sitting with *t* on?
c. *The coat that Grace is sitting with *t* on is very warm.

잘 알려져 있듯이 영어는 전치사 좌초(preposition stranding)를 허용하는 언어인데 (4)는 전치사 좌초의 전형적인 예이다. 그런데 (4)와 달리 (5)는 비문법적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두 예문이 비슷해 보이지만 (4)는 with가 명사구를 보충어로 취하는 구조이고 (5)는 with가 소절(small clause)을 보충어로 취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Beukema & Hoekstra(1984)는 (5)의 비문법성을 공범주 원리(Empty Category Principle)(cf. Chomsky 1981) 위반으로 설명한다. 즉, 소절 내의 흔적은 ‘고유 지배(proper govern)’되어야 하는데 전치사 con이 절(소절)의 경계를 넘어 흔적을 고유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비문법성이 초래된다고 본다. Beukema & Hoekstra은 그 이유를 V를 제외한 P, N, A 범주들은 자신이 의미역 표시(theta mark)를 하는 공범주만 고유 지배할 수 있는데 (5)에서는 with가 흔적에 의미역 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흔적을 고유 지배할 수 없고 그 결과 흔적이 공범주 원리를 위반한다는 것이다.

- (6) *What is Grace sitting [_{PP} with [_{SC} *t* on]]? (= (5b))
| — ↑
*p.g

한편, 임창국(2007)은 (5)의 비문법성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한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영어에서는 *that* 절의 주어가 절 밖으로 *wh*-이동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소위, ‘보문소-흔적 효과(comp-trace effect)’가 나타난다.

- (7) a. John believes that Peter will come tonight.
b. **Who* does John believe [_{CP} that [_{IP} *t* will come tonight]]?

그런데 ‘보문소-흔적 효과’는 보문소 *that*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for*가 ‘to-원형절’을 보충어로 취하는 경우에도 나타난다. 아래 예를 보자.

- (8) a. What did they hope for *t*?
b. *What did they hope for [*t* to happen]?
(Beukema & Hoekstra 1984:690)

(8a)와 달리 (8b)가 비문법적이라는 사실은 비시제절을 보충어로 취하는 *for*는 전치사가 아니라 보문소(전치사적 보문소, prepositional complementizer)라는 증거로 많이 활용된다(cf. Radford 1997:54-55).⁷⁾ 왜냐하면 *for*를 보문소로 보면 (8b)의 비문법성도 ‘보문소-흔적 여과(comp-trace filter)’ 위반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 (9) **What* did they hope [_{CP} for [_{IP} *t* to happen]]? (= (8b))

이처럼 ‘보문소-흔적 효과’는 *that* 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입각하

7) Hantson(1992:76-77)도 with-AC의 *with*를 보문소로 분석한다. 그는 to-원형절을 이끄는 *for*처럼 *with*도 전치사에서 보문소로 재범주화(recategorization)되었다고 본다(cf. Dubinsky & Willimas, 1995). 그는 *with*가 전치사가 아니라는 근거로 여러 가지를 제시하는데 가령, (i)에서처럼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 절(*gerund clause*)이 출현할 수 있지만 (ii)에서 보듯이 with-AC의 *with* 뒤에는 동명사 절이 출현할 수 없다는 것이다.

(i) This has nothing to do with {him/his} being late.
(ii) Apparently she wants to set up a council containing equal representation of the county's three main economic interests, with {him/*his} exercising an impartial chairman's role in balancing these interests against one another.

여 임창국은 with-AC의 with를 보문소로 본다면 (5a,b,c)의 비문법성도 ‘보문소-흔적 여과’ 위반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⁸⁾

- (10) **What* is Grace sitting [_{CP} with [_{PrP} *t* on]]? (= (5b))

임창국은 with-AC의 with가 전치사가 아니라는 근거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전치사는 일반적으로 문장을 보충어로 취하지 않으며 자신의 보충어에 명제(proposition) 의미역이 아닌 대상(theme) 의미역을 할당하는데 with-AC에서 with는 명제적 해석을 지니는 소절을 보충어로 취하므로 전치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11)에서 보듯이 원형절을 보충어로 취하는 보문소 *for*는 PRO를 허가하지 않는데 (12a)에서 보듯이 with도 PRO를 허가하지 않기 때문에 전치사가 아니라 보문소라는 것이다.

- (11) a. Sam would like (*for) PRO to buy the book
b. (*For) PRO to buy the book would be preferable
c. *(For) Sue to stay home today is no surprise
- (12) a. (*What with)⁹⁾ PRO tired/ a doctor/ under the table, Sam ...
b. (What) with Sam tired/ a doctor/ under the table, he ...

임창국은 with를 보문소로 분석함으로써 (5a,b,c), (7b), (8b)의 비문법성을 모두 ‘보문소-흔적 여과’ 위반으로 설명할 수 있고 이러한 분석의 부수적 이점으로 보문소는 특정 유형의 보충어절을 하위범주화 한다는 점을 일반화 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즉, *that*은 시제절을, *for*는 원형절을, 그리고 with는 소절을 보충어로 취한다는 것을 일반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8) 임창국은 with가 보충어로 취하는 소절의 범주를 서술구(Predication Phrase)로 본다 (cf. Bowers 1993).

9) 드물기는 하지만 with 앞에 *what*이 추가된 절대절도 존재한다(cf. Felser & Britain 2007).

2. 김성욱(2008)

김성욱(2008)은 with가 전치사가 아니라는 임창국(2007)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with를 전치사로 분석하는 장점이 더 크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with를 보문소로 봐야만 (5a,b,c)가 비문법적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는 임창국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치사로 보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이들 예문의 비문법성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성욱의 주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첫째, 전치사는 절을 보충어로 취할 수 없는 범주인데도 with-AC의 with는 명제적 해석을 받는 소절을 보충어로 취하기 때문에 전치사로 볼 수 없다는 임창국의 주장에 대해 김성욱은 이러한 주장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그 근거로서 영어에서 전치사가 시제절을 보충어로 취하는 사례와 함께 (14)처럼 소절을 보충어로 취하는 사례도 제시한다.

- (13) a. The project is satisfactory except that it is too expensive to execute.
 - b. John seems to be a genius in that he always solves the most difficult math problems.
 - c. We argued about who would lead the children.
- (김성욱 2008:166)

- (14) I thought about [him in a kimono].
- (김성욱 2008:166(cf. Ferrell 2005, footnote 23에서 재인용))

둘째, 아래 (15), (16)에서 (a)와 (b)의 대조에서 보듯이 보문소 that과 for는 동사의 보충어 위치에서 탈락될 수 있지만 주어 위치에서는 출현해야만 한다.

- (15) a. Mary thinks [(that) Sue left].
 - b. [* (That) Sue left] is obvious.
- (16) a. Mary would prefer [(for) Sue to leave].

- b. [**(For)* Sue to leave] would be desirable.
(김성욱 2008:166)

하지만 (17a,b)에서 보듯이 with는 주어 위치든 보충어 위치든 모두 출현할 수 없다는 점에서 that, for의 분포와 상당히 다르다고 주장한다.

- (17) a. [**(With)* All the lights on at the same time] isn't going to be a problem.
b. Try to picture in your mind's eye [(*)with] the mayor in a kimono)
(김성욱 2008:167)

셋째, 김성욱은 PRO는 that, for와 같은 보문소 뒤에만 출현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전치사 뒤에도 올 수 없기 때문에 with-AC에서 with 뒤에 PRO가 출현할 수 없다는 사실이 with를 보문소로 봐야할 절대적인 근거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넷째, 김성욱은 낱말이 고유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는 반의어 존재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반의어가 있으면 고유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시대명사로 쓰이는 that과 전치사로 쓰이는 for는 각각 this와 against라는 반의어가 존재하지만 보문소로 쓰이는 that과 for는 적절한 반의어를 찾기 어렵기에 기능 범주에 속한다는 것이다.¹⁰⁾ 그런데 아래에서 보듯이 with-AC는 with의 반의어 without을 허용하므로 with는 보문소가 아닌 전치사로 봐야한다고 주장한다.

- (18) a. {*(With/Without)* [SC the computers off] we won't be able to use these machines.
b. Without his brother at home, Mike felt empty.
(a) 김성욱 2008:170; (b) Yoo 2008:52)

10) 지시대명사(*this* book, *that* book)는 기능범주인 한정사(Det)로 분류된다. 따라서 기능 범주에 속한다고 해서 무조건 고유 의미가 없다고 말하긴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반의어의 존재만으로 어휘 범주와 기능 범주를 구분하는 절대적 기준은 될 수 없어 보인다. 물론 김성욱도 자신의 논문 각주 11에서 이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기는 하다.

끝으로 김성욱은 임창국 주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보문소-흔적 여과’에 입각한 (5)의 비문법성 분석에 대해서도 with를 전치사로 보더라도 (5)의 비문법성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with-AC는 주절을 수식하고 이동과 생략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적으로나 통사적으로나 부가어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 주목하여 (5)의 비문법성은 부가어절 밖으로의 이동을 금지하는 부가어 섬 제약(Adjunct Island Constraint) 또는 적출 영역 조건(Condition on Extraction Domains) 위반으로 설명하면 된다는 것이다.

- (19) 부가어 섬 제약(Adjunct Island Constraint) (Ross 1967)

그 어떠한 것도 부가어절 밖으로 이동할 수 없다

(Nothing may be moved out of a clausal adjunct.)

- (20) 적출 영역 조건(Condition on Extraction Domains) (Huang 1982)

어떤 구 X는 영역 Y가 고유 지배¹¹⁾되는 경우에만 영역 Y의 밖으로 적출될 수 있다.

(A phrase X can be extracted from a domain Y only if Y is properly governed.)

III. con-AC에서 con의 범주

이번 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with-AC의 with가 보문소라는 임창국(2007)의 주장과 with를 보문소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전치사로 분석하는 것이 더 낫다는 김성욱(2008)의 반론을 참고로 하여 쟁점 사항 위주로 con-AC에서의 con의 범주 문제를 다뤄보기로 하겠다. 결론을 앞당겨 말하자면 임창국의 주장 중에는 적절치 못한 점이 있고 김성욱의 지적 사항 중에는 타당한 면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는 con을 보문소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11) 영역 Y가 어떤 어휘 핵의 보어인 경우에 고유 지배되고 Y가 주어 또는 부가어인 경우에는 고유 지배될 수 없다.

1. 절을 보충어로 취하느냐의 여부

김성욱(2008)의 지적처럼 전치사가 절을 보충어로 취하지 않는다는 임창국(2007)의 주장은 물론 틀린 것이다. 왜냐하면 스페인어의 전치사는 시제절 및 원형절을 보충어로 취할 수 있고 심지어 아주 드물긴 하지만 소절도 보충어로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1) a. El cónsul destituido se ha quejado de [que en España ya no hay libertad de expresión]
- b. No estoy de acuerdo con [que se esté dando una pérdida de valores]
- c. Me alegro de [estar aquí]
- d. Ella se fue sin [decirme adiós]

- (22) A veces pienso en [él fumándose un enorme puro en su sillón de orejas]
- (NGLE 2010:514)

다만 con-AC에서 con이 절을 보충어로 취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전치사라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없을 듯하다. 왜냐하면 보문소도 절을 보충어로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¹²⁾

- (23) a. No tengo nada que [decirles]
- b. No sé si [decirlo o callarme]
- c. Juan me ha preguntado que [qué hice ayer]

따라서 필자는 다른 기준을 통해 전치사인지는 아니면 보문소인지의 여부를 논의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전치사와 보문소는 자신들이 보충어로 취하는

12) Fernández Leborans(1995)는 명시적 술어 없이 주어만 출현하는 con-AC가 존재하는데 이 경우도 명제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con이 DP를 보충어로 취하는 것이 아닌 비명시적 술어를 포함하는 소절을 취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한다.

(i) Con Lola, es mejor no hablar de lo ocurrido.
= Con Lola “presente” / “aquí”, ...

절의 통사 범주와 관련하여서는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con의 범주적 실체에 다가가 보고자 한다. 아래 (24c)의 비문법성이 보여주듯이 전치사는 IP를 보충어로 취할 수 없다.

- (24) a. Juani se queja de [_{CP} ø [_{IP} PRO_i tener que entregar el informe para mañana]]
 b. Juan se queja de [_{CP} que [_{IP} no hay libertad de expresión en Cuba]]
 c. *Juan se queja de [_{IP} no hay libertad de expresión en Cuba]

반면, 보문소(si, que)는 앞의 (23c)처럼 CP를 보충어로 취하는 것 이외에 IP도 보충어로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 (25) a. Si [_{IP} llueve esta tarde], no iremos a la playa.
 b. Yo creo que [_{IP} Corea del Norte no quiere dialogar con EE. UU.]]

한편, con-AC에서 소절이 명시적 보문소가 포함된 CP로 시작되는 경우는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소절의 범주가 CP는 아닌 듯하다.

- (26) Con [(*)que] el aire acondicionado puesto], fuimos a dormir.

생성문법에서 소절의 범주가 무엇이나, 내적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를 두고 학자들의 견해는 다양하다. 예를 들어 Stowell(1981)¹³⁾은 소절은 술어의 최대 투사이고 따라서 술어의 범주가 무엇이나에 따라 소절의 범주가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 Chomsky(1986)¹⁴⁾는 소절은 최대투사 구조라는 것만 언급할 뿐 어떤 범주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Radford(1988)는 소절을 [NP XP] 구조로 보면서 소절에 SC라는 명칭만을 부여할 뿐 그 역시 구체적으로 어떤 범주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Bowers(1993)는 소절을 Predicate Phrase라

13) [_{XP} [_{Spec} NP] X']

14) [_{XP} [_{Spec} NP] XP]

고 보았고 den Dikken(2006)은 Relator Phrase로 보았다.

한편, Hornstein and Lightfoot(1987)은 소절은 zero/empty INFL을 핵으로 하는 IP라고 주장하였고 Aarts(1992), Haegeman & Guéron (1999) 등도 소절의 범주를 IP로 분석하였다.¹⁵⁾ 이처럼 소절의 범주에 대한 통일된 견해는 없지만 주목할 사항은 IP로 분석하는 학자는 있어도 CP로 보는 경우는 없다는 점이다. 만일 소절을 zero INFL을 핵으로 하는 IP로 보는 분석이 옳다면 con-AC에서 con의 보충어인 소절은 IP일 것이다. 앞서 (24c)와 (25a,b)의 대조에서 보았듯이 보문소는 IP를 보충어로 취할 수 있는 반면에 전치사는 IP를 보충어로 취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con을 전치사로 분석하는 것보다는 보문소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뿐만 아니라 con-AC에서 주어가 취하는 격의 형태와 관련한 사실도 con이 보문소라는 것을 지지하는 듯하다. 아래에서 보듯이 XP-DP 어순의 AC에서는 소절 주어가 주격형을 취하지만 con-AC에서는 주어가 사격형(oblique)을 취한다.

- (27) a. Llegado {tú/ *ti}, la fiesta podía empezar.
b. Conocido {yo / *mí}, empezaste a apreciar el mar.
(Bruno 2011:270)
- (28) a. {Conmigo/ *Con yo/ *Con me} enfermo, no serán capaces de hacerlo.
b. {Contigo/ *Con tú/ *con te} en casa, es imposible trabajar.
(Hernanz & Suñer 1999:2552)

con-AC의 소절 내에서는 시제가 없으므로 절 내부에서는 주어가 격 여과(Case filter)를 만족시킬 수 없다. 따라서 다른 방법 가령, 외부로부터 격을 할

15) 다만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의견이 다르다. Hornstein & Lightfoot(1987)과 달리 Aarts(1992)는 [-Tense/+Agr] 자질로 구성된 INFL을 핵으로 지닌 IP로 보며, Haegeman & Guéron(1999)은 일치 형태소(agreement morpheme)를 관할하는 INFL을 핵으로 지닌 IP로 분석한다.

당(혹은 인히)받아야 하는데 주어가 사격형을 취한다는 사실은 con으로부터 격을 할당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명사가 자신이 출현하는 절 내부에서 격을 받지 못하고 절 외부로부터 격을 조달받는 대표적 방식은 예외적 격 표시(Exceptional Case Marking, 이하 ECM)인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그 절은 CP가 아닌 IP여야 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점이다.

- (29) a. I believe [_{IP} him to be honest]
b. I consider [_{IP} him stupid]

따라서 con-AC에서 con이 ECM을 통해 소절 주어에 격(사격)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소절의 범주가 IP여야 한다.

- (30) [_{CP} Con [_{IP} tú en casa]], es imposible trabajar.
+ Case via ECM
→ [_{CP} Contigo en casa]]

전치사는 IP를 보충어로 취할 수 없는 반면에 보문소는 IP를 보충어로 취할 수 있다는 차이점을 감안한다면 con-AC의 con을 보문소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다만, con-AC의 con이 보문소라면 소절 주어의 격 형태(사격)가 전형적인 전치사가 부여하는 사격(No quiero hablar contigo)과 형태적으로 동일한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질문이 제기될 수 있을 있는데 본고에서는 영어에서 원형절을 이끄는 for가 전치사에서 보문소로 재범주화(recategorization of preposition into complementizer)(cf. Dubinsky & Williams 1995)되었다고 보는 것처럼 con-AC의 con도 원래는 전치사였다가 보문소로 재범주화된 것으로 보고자 한다. 다만 보문소로 재범주화된 이후에도 남아있는 전치사의 특성이 격 할당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도록 하겠다. 이런 점에서 con을 ‘전치사적 보문소(prepositional complementizer)’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할 듯하다.

또한, 진정한 전치사는 자신의 보충어에게 사격과 의미역을 동시에 부여한다.

- (31) Me he cortado con un cuchillo.
 +C/+θ(instrument)

하지만 con-AC에서는 소절의 주어에 의미역을 부여하는 것은 con이 아니라 서술어라는 점에서 격 할당자와 의미역 할당자가 다르다.

- (32) Con ella enferma, la vida no es como antes.
 |__ ↑ ↑ __|
 +C +θ

이런 점 역시 con-AC의 con이 전치사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2. 생략 가능성의 여부

스페인어에서 전치사는 원칙적으로 생략될 수 없다.

- (33) a. El chico rompió la ventana *(con) este martillo.
 b. Estoy aquí *(desde) las cuatro.
 c. Fui *(a) la escuela.
 d. Juan vive *(en) Sevilla.

con-AC의 con도 “원칙적”으로는 생략될 수 없다.

- (34) Juan está durmiendo *(con) la boca abierta.

그러나 이런 공통점만으로는 con-AC의 con을 전치사로 단정 짓기가 어려울 듯하다. 왜냐하면 스페인어에서 보문소 범주에 속하는 것들도 “원칙적”으로는 생략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보문소 que와 si는 “원칙적”으로는 생략이 될 수 없다.

- (35) a. Yo creo *(que) Juan no dijo la verdad.
 b. *(Si) llueve, no saldré.

따라서 con-AC의 con이 생략될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전치사인지 보문

소인지를 단언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필자는 아래의 논의를 통해 con을 보문소로 보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영어의 보문소 that은 동사의 보충어 위치에서 생략될 수 있다.

- (36) I believe (that) John didn't tell me the truth.

그런데 with-AC의 with 역시 생략될 수 있다는 점에서 둘은 닮았다.¹⁶⁾

- (37) a. There he sat, [ø [his back against the hot stones of the tower]]
 b. (With) the negotiators still for apart on so many issues, it's hard to see how these talks will ever end.
 c. (With) the Lakers so successful, LA fans are optimistic about the playoffs.
 d. (With) email and webbrowsers commonplace, it's hard to remember what life was like before the Internet
 e. They stood there, (with) their eyes lowered.
 f. (With) the bus drivers (being) on strike, we'll have to walk to the place.
 ((a-d) Richemann & Bender 1999:478-479; (e) Haik 2013:2; (f) Yoo 2008:1)

반면, 영어에서 전형적인 전치사 with는 생략이 불가능하다.

- (38) a. I talked *(with/to) him.
 b. The man smashed a vehicle's window *(with) a hammer.

따라서 만약 with-AC의 with가 전치사라면 (37)에서 생략이 가능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게 된다. 반면, 보문소로 본다면 고유한 의미가 결여된 보문소 that이 생략될 수 있는 것처럼 별다른 의미적 기여가 없는 with-AC의 with도

16) 아래 예에서 보듯이 with 생략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닌 듯하다.

(i) We went to school *(with) my sister in a kimono.
 (Ferrell 2005:9)

생략될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는 스페인어의 경우를 보자. (35)에서 본 것처럼 보문소 que는 “원칙적”으로는 생략될 수 없듯이 con-AC의 con 역시 “원칙적”으로 생략될 수 없다.

(39) Juan está durmiendo *(con) la boca abierta. (= (34))

보문소 que와 con-AC의 con이 “원칙적”으로 생략될 수 없다는 점에서 둘은 같은 특성을 보여준다. 필자는 이 사실을 우연의 일치라기보다는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요소들이 보여주는 공통의 특성으로 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영어에서 생략가능성 여부와 관련하여 with-AC의 with와 보문소 that이 동일한 분포적 특성을 보여준다는 사실, 즉, 생략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with를 보문소로 볼 수 있다면 con-AC의 con 역시 생략가능성 여부와 관련하여 보문소 que와 동일한 분포적 특성, 즉, 생략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con을 보문소로 분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판단된다.

한편, 보문소 que와 con-AC의 con이 보여주는 또 다른 공통점은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생략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앞에서 둘은 “원칙적”으로 생략이 불가능하다고 말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보문소 que는 격식을 갖춘 언어, 가령 행정 언어(administrative language)에서 접속법 절을 보충어로 취하는 몇몇 동사(lamentar, esperar, rogar, preocupar) 뒤에서 탈락이 허용된다(cf. Torrego 1983, Brovett 2002, Bosque & Gutiérrez-Rexach 2009).¹⁷⁾

- (40) a. Esperamos [ø [se encuentren a gusto entre nosotros]]
 b. Ruego [ø [acepte usted nuestras más sinceras disculpas]]
 c. Le agradecerá [ø [me responda a la mayor brevedad]]
 (Bosque & Gutiérrez-Rexach 2009:195)

한편, Gunnarson(1994:130)에 따르면 con-AC의 con은 대부분의 경우 생략

17) Torrego(1983:562)에 따르면 보문소 생략은 내포절의 주어가 내포절 동사 뒤에 출현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이 불가능하고 생략이 가능한 일부의 경우라 할지라도 con을 생략한 절대절의 사용 빈도가 매우 낮다고 말하고 있다.

“The construction in (13) has limited distribution, however. It cannot match ‘con-small clause’ in most of its uses and, even within the subset where it is available, it is little used in Spanish, which differs considerably from French in this respect.”

- (41) a. Vestía de negro, *la cara rasurada*, la boina grande.
 b. El hombre solitario prosigue, *lupa en mano*, su rara suerte discontinua de cosa trunca [J. L. Borges, OP, 668]
 c. Alguien estaba ya en el río y llamaba, *medio cuerpo escondido bajo el agua naranja*. [R. Sánchez Ferlosio, EJ, 34]
 ((a) Gunnarson 1994:130; (b)-(c) Suñer & Hernanz 1999:2527)

이처럼 보문소 que와 con-AC의 con은 “원칙적”으로는 생략이 허용되지 않지만 드물게나마 생략이 허용되기도 한다는 사실 또한 둘의 공통된 범주적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대등접속구조(coordinated structure)에서의 생략 허용 여부도 con-AC의 con이 보문소 범주에 더 가깝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하다. 대등접속은 동일 범주에 속하거나 혹은 동일 범주에 속하지 않더라도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요소들끼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Cantero(2009), Pavón(1999)에 따르면 전치사구끼리 대등접속을 이루는 경우 두 번째 전치사구에서 전치사의 생략이 허용되지 않는다.

- (42) a. *Cuento [con que vengas] y [ø que lo veas]
 b. *Depende [de que lo veas] y [ø que te guste]
 c. *Te lo he traído [para eso] y [ø que me des tu opinión]
 d. *Suspendió el examen [por su inseguridad] y [ø que no se había esforzado demasiado]
 e. *No he vuelto a verle [desde [que nos encontramos en Valencia] y [ø que me dijo que iba a casarse]]
 ((a)-(b) Cantero 2009:54, 56; (c)-(e) Pavón 1999:631)

반면에 보문소 que를 핵으로 하는 CP가 대등접속 되면 두 번째 que는 생략이 가능하다.

- (43) a. Juan dijo [que iría a Madrid] y [ø regresaría el mes que viene]
 b. Cecilia es una profesional [que trabaja con desnudo] y [ø cumple todas sus obligaciones puntualmente]
 c. El consejero [que llegó tarde] y [ø se fue en seguida]
 (Brucart 1999:467-468)

흥미로운 것은 두 개의 con-AC가 대등접속 되면 두 번째 con-AC의 con도 생략될 수 있다는 점이다.

- (44) a. Regresó del colegio [con un ojo a la funerala] y [ø la chaqueta rota]
 b. Te esperamos [con la comida hecha] y [ø la mesa puesta]
 c. Ya no ponemos el aire acondicionado por la noche, [con la ventana abierta] y [ø el ventilador puesto]
 d. La imagen del soldado musulmán [con una espada en una mano] y [ø el Corán en la otra] es completamente errónea.
 ((a), (b) Suñer & Hernanz 1999:255;
 (c) <https://m.forocoches.com/foro/showthread.php?t=4431467>;
 (d) A. S. Tritton(1951), *Islam*, Londres, pp. 21)

만약 con-AC의 con이 전치사라면 (44)에서도 (42)처럼 등위접속된 두 번째 요소에서 con의 생략이 불가능해야 할 것이나 실제로는 그 반대이다. 따라서 대등접속구조에서의 생략 가능성 역시 con-AC의 con이 전치사 보다는 보문소에 더 가까운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3. 의미적 역할 여부

김성욱(2008)은 기능범주에 속하는 C, I, *no* 등은 고유 의미를 지니고 있기 보다는 문법적 기능이 중요한 것들로서 예를 들어 보문소 that, for는 고유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with-AC의 with는 의미적인 기여가 있으므로

전치사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김성옥은 with가 의미적 기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세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 다만 아래 예문에서 with의 출현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with의 의미적인 기여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치고 있어서 설득력이 좀 떨어져 보인다.¹⁸⁾

- (45) a. [(With) All the lights on at the same time] isn't going to be a problem.
b. Try to picture in your mind's eye [(with) the mayor in a kimono]

그러나 필자는 세 가지 논의를 통해 con-AC에서 con은 고유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아래 예를 보자.

- (46) *Con una copa en la mano*, las ganas de echarse un pitillo crecen exponencialmente.
- (47) *Con el niño enfermo*, no se puede trabajar.
(Hernanz 1991:106)
- (48) a. *Con los toros tan flojos*, el torero carece de emoción.
b. *Contigo ausente*, perderemos el partido.
c. *Con Luis y Ana besándose continuamente durante la cena*, todos estábamos incómodísimos
d. Salimos del cine *con María llorando*.
(a,b) Dalmi 2005:188; (c) Hernanz & Suñer 1999:2549;
(d) Suñer 1988:84)

(46)에서 con-AC는 ‘술을 마시게 될 때마다/마시게 되면(= {siempre que/cuando} bebo alcohol)’의 해석을 지닌다. 그리고 Hernanz(1991:106)에 따르면 (47)에서는 con-AC가 조건의 의미(=Si el niño está enfermo)를 나타낸다.

18) 필자가 보기엔 이들 예문에서 with가 출현할 경우 비문이 되는 이유는 with-AC는 부가어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논항 위치에 출현할 수 없는데도 논항 위치에 나타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48a-d)에서는 con-AC가 주절의 사건에 대한 원인의 의미를 지닌다. 이처럼 예문에 따라 con-AC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은 con 자체의 고유 의미가 없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con-AC와 주절 사이에는 둘을 연결해주는 명시적인 종속접속사가 없다. 따라서 con-AC의 의미는 con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절에서 표현된 사건과 con-AC에서 표현된 사건의 상호관계를 통해 도출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둘째, Hernanz & Suñer(1999:2550)에 따르면 AC와 con-AC는 대체로 호환¹⁹⁾이 가능하고 또 유사한 해석을 지닌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con-AC에서 con은 의미적인 역할이 없거나 설령 있다 하더라도 매우 미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²⁰⁾

19) 아래에서 보듯이 con-AC와 AC의 호환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Suñer(1988:103)는 호환성/상호대체의 가능성은 소절의 동사적 성격과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

(i) a. Con su marido en la cárcel, Ana lo pasa fatal.

b. *En la cárcel su marido, Ana lo pasa fatal.

20) Hernanz(1993)(Fernández Leborans 1995:384, 389에서 재인용)는 con은 지속적 가치(valor durativo)를 지니고 있어서 과거분사와 같은 술어가 지닌 완료적 가치(valencia perfectiva)를 약화 혹은 중화시키는 역할 수행하기 때문에 con-AC는 con이 지닌 지속적 가치와 술어가 지닌 완료적 가치가 혼합된 조합적 해석(interpretación composicional)을 받게 된다고 말한다. 한편, 아래 두 문장은 미세한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

(i) a. Convocadas las elecciones, es muy arriesgado tomaer decisiones impopulares.

b. Con las elecciones convocadas, es muy arriesgado tomaer decisiones impopulares.

(a)는 어떤 완료적 절차의 최종상태(estado final(perfección o término) de un proceso perfectivo)(=cuando *han sido* convocadas las elecciones.../ una vez que se han convocado las elecciones...)를 의미하고 (b)는 지속중인 상황(situación en curso, durativa o continuativa)(=cuando *están* convocadas las elecciones ...)을 표현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미세한 차이를 두고 고민이 되는 것은 과연 이 차이를 con이 고유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증거로 봐야할지 아닌지의 여부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i)에서 con의 출현 유무는 두 문장의 미세한 차이를 낳는 요인이기는 하지만 (ia)와 (ib)의 차이는 '완료'와 '완료+지속(상태 혹은 상황의 지속)'이라는 점에서 의미적 차이라기보다는 상적(aspectual)인 차이로 보는 게 적절해 보인다.

con-AC와 AC의 차이를 의미보다는 상적 차이로 보는 게 더 적절하다고 보는 이유는 AC의 경우 사건의 완료를 가리키는 부사(una vez, apenas, ya)의 출현이 가능하며 (*Una vez* terminado el plazo..., *Apenas* dicho esto...) 이때 AC는 주절의 사건보다 선행된 사건을 가리킨다(cf. Marín 2002:5). 반면, con-AC는 이와 같은 부사의 출현을 허용치 않는다. 그 이유는 완료상을 나타내는 단어(una vez, apenas, ya)와 지속상을 나타내는 con이 동시에 출현할 경우 상적 갈등 혹은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일 것이다.

- (49) a. *Cerrados los ojos*, es fácil llevar por la música.
 b. *Con los ojos cerrados*, es fácil llevar por la música.
- (50) a. *Acabada la carrera*, Luis encontró empleo fácilmente.
 b. *Con la carrera acabada*, Luis encontró empleo fácilmente.

셋째, 영어나 불어의 자료를 살펴보는 것도 con이 고유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듯하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영어의 with-AC에서는 with가 생략될 수도 있고 Haik(2013:2)에 따르면 불어는 avec의 출현을 허용하지 않는다.²¹⁾

-
- (ii) a. *Con una vez la ventana abierta.
 b. *Con apenas la ventana abierta.
- 21) 필자가 인터넷에서 불어자료를 검색을 해본 바로도 avec-AC는 매우 드물었다. 다만, 김종명(2014:197-198)은 avec-AC 예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avec의 사용이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닌 듯하다. avec의 출현 유무가 격식체와 비격식체의 차이 혹은 문어체와 구어체의 차이인지는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
- (i) a. *Avec une main de libre*, je pourrai faire cela.
 'With a hand free, I can do that'
 b. *Avec trois guides de malades*, ce serait difficile de continuer le voyage.
 'With three guides sick, it would be difficult to continue the journey.'
- 한편,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는 스페인어의 con-AC와 동일한 구조를 허용한다.
- (ii) a. *Con te libera sara tuto piu facile.* (Italian)
 'With you free everything will be easier.'
 b. *Con Gianni ammalato*, non si puo partire.
 'With G. ill, we will not leave.'
 (Cinque 1995:233)
- c. *Dormir com o ventilador ligado pode trazer riscos a saúde.* (Portuguese)
 'To sleep with the fan on can cause health problems'
 d. *Por que os caes dormem com os olhos abertos?*
 'Why do dogs sleep with the eyes open?'
<https://www.noticiasao minuto.com.br/lifestyle/259075/dormir-com-ventilador-ligado-pode-trazerriscos-a-saude-saiba-mais>
<http://blog.petreport.net/por-que-os-caes-dormem-com-os-olhos-abertos/>
- Haik(2013)의 말처럼 불어에서 avec의 출현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면 불어는 비영주어(non-null subject) 언어이고 스페인어/이탈리아어/포르투갈어는 영주어 언어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차이점은 아마도 두 유형의 언어를 구분 짓는 또 다른 특징일지도 모른다.

- (51) a. Je l'ai trouvé *les mains en l'air*.
'I found him with his hands up.'
b. Il l'attendait, *les bras croisés*.
'He was waiting for her, his arms crossed.'
c. On l'a conduit *les yeux bandés*.
'He was led blindfolded.'
d. Il se tenait *les bras croisés*.
'He was standing with his arms crossed.'
(Haïk 2013:3)

이처럼 스페인어 con-AC에 상응하는 영어 with-AC에서는 with가 생략될 수 있으며, 불어의 경우는 avec의 출현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with와 avec이 각각 고유한 의미가 없거나 혹은 의미적인 기여가 없기 때문에 풀이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con-AC의 con이 의미적 기여가 없다는 필자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 하겠다.

4. 반의어 존재 유무

김성욱(2008)은 어떤 낱말이 고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는 반의어가 있는지를 여부를 살펴보는 것인데 절대절의 with는 without라는 반의어가 존재하므로 with를 전치사로 봐야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을 스페인어에 적용해보자면 con-AC의 con도 전치사인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con의 반의어인 sin도 절대절을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 (52) a. La cenan empezó *sin el presidente en el sitio de honor*.
b. Miguel estaba *sin dinero en el banco*.
c. El coche fue abandonado *sin gasolina en el depósito*.
d. Viviría mejor *sin ese hombre molestándome* a todas horas.
e. *Sin ella presente*, es como un mundo desconocido en que uno teme moverse, sentarse, fumar o leer.
f. Debería prohibirse fumar en el coche incluso *sin niños dentro*.
((a)-(c) Suñer 1988:88; (d)-(e) NGLE 2010:516, 733, (f) El País 2018. 2.23일자)

그러나 필자는 이 사실 역시 con이 전치사라는 결정적 증거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다. 왜냐하면 전치사라면 다른 어휘를 사용하여 반대의 의미 전달이 항상 가능해야 한다.²²⁾ 가령, 아래에서 보듯이 진정한 전치사라면 반대 의미를 지닌 전치사로 대체했을 때 반대 의미의 전달이 항상 가능해야 한다.

- (53) a. Pedro lo rompió {con martillo/ sin martillo}.
- b. Pedro lo comió {con cuchara/ sin cuchara}.
- c. Pedro lo lavó {con detergente/ sin detergente}.
- d. La cerveza {con o sin alcohol}, ¿una bebida saludable?

그러나 절대절의 경우는 con 대신 sin을 사용하여 반대의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 항상 가능하지만은 않다.

- (54) a. Juan durmió con la ventana abierta.
- b. ??Juan durmió sin la ventana abierta.
- (55) a. Me quedé dormido con el aire acondicionado puesto.
- b. ??Me quedé dormido sin el aire acondicionado puesto.
- (56) a. Con Pedro enfermo, la vida no es como antes
- b. ??Sin Pedro enfermo, la vida no es como antes.
- (57) a. Cruzó la calle con el semáforo en rojo
- b. ??Cruzó la calle sin el semáforo en rojo.

게다가 NGLE(2010:516)에 따르면 sin이 절대절을 이끄는 빈도는 con이 절대절을 이끄는 빈도보다 훨씬 낮다. 전치사의 경우는 sin이 con에 비해 사용 빈도가 현저히 낮다고 말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부정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얼마든지 sin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절대절에서는 con의 사용 빈도

22) con-AC에 상응하는 불어 절대절에서 avec의 출현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절대절에서 avec은 고유 의미를 지닌 전치사가 아님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불어 전치사 avec은 자신의 보충어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가 sin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는 사실은 con을 전치사로 보기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다.

한편, 다른 전치사들(ante, bajo, contra)도 매우 드물긴 하지만 절대절을 이끌 수가 있는데 (58)과 (59)의 대조에서 보듯이 반의어를 사용하면 비문이 된다.

- (58) a. Ante²³⁾ un matrimonio discutiéndose, vale más no intervenir.
b. ³Bajo una tormenta de nieve arreciando por momentos, los alpinistas optaron por regresar al refugio.
c. ³Contra los estudiantes alborotando, la policía no pudo hacer nada.
(a) Suñer y Hernanz 1999:2553; (b), (c) Suñer 1988: 88)

- (59) a. *Detrás de un matrimonio discutiéndose, vale más no intervenir.
b. *Sobre una tormenta de nieve arreciando por momentos, los alpinistas optaron por regresar al refugio.
c. *A favor de los estudiantes alborotando, la policía no pudo hacer nada.

지금까지의 논의에 근거하여 본고에서는 절대절에 있어 가장 출현 빈도가 높은 con을 비롯하여 나머지 어휘들을 전치사적 보문소의 변이형(variant), 즉 이형태(異形態, allomorph)로 보고자 한다. 가령, 스페인어의 복수 형태소(plural morpheme)가 모음 뒤에서는 -s(libros)로, 자음 뒤에서는 -es(ciudades)로 실현되고, 한국어의 주격조사가 음운 환경에 따라 ‘-이’ 또는 ‘-가’로, 목적격조사가 ‘-을’ 또는 ‘-를’로 실현되듯이 전치사적 보문소라는 형태소가 대개는 대표적 이형태인 con으로 실현되지만 때로는 con 이외의 다른 이형태로 실현되기도 한다고 보도록 하겠다.

23) <http://www.wordreference.com>에 따르면 전치사로서의 ante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① prep. En presencia de, delante de, ② En comparación, respecto de)

5. ‘보문소-흔적 효과’ 부재의 이유

영어 with-AC의 with는 보문소이며 따라서 with-AC 밖으로 소절의 주어가 의문사 이동하면 비문법성이 초래되는 이유는 ‘보문소-흔적 여과’를 위반하기 때문이라는 임창국(2007)의 주장에 반해 with를 전치사로 분석하는 김성욱(2008)은 이러한 이동이 비문법성을 초래하는 이유는 with-AC가 부가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with-AC 밖으로의 이동은 ‘부가어 섬 제약’ 위반에 기인한다고 주장하였다.

스페인어 con-AC 역시 부가어의 기능을 한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가어가 비교적 문장 내에서 출현 위치가 자유롭듯이 con-AC 역시 주절의 앞 또는 뒤에 출현할 수 있다. 심지어 문장 내부에도 출현 가능하다.

- (60) a. *Con los ojos cerrados*, Juan está escuchando música.
 b. Juan está escuchando música *con los ojos cerrados*.
- (61) a. Aquel chico *con el pelo cortado al cero* vive cerca de mi casa.
 b. El hombre, *con el sombrero entre las manos*, nos miraba fijamente.
 ((a) Suñer & Hernanz 1999:2550; (b) Rigau 1999:342)

둘째, 부가어는 문장 내에서 하나 이상 출현 가능하듯이 con-AC 역시 문장 내에서 하나 이상 출현 가능하다는 점이다.

- (62) a. *Con toda la policía rodeando el edificio*, los secuestradores salieron *con las manos en alto*.
 b. *Con Luis a mi lado*, me recibirán *con los brazos abiertos*.
 (Suñer 1988:102)

따라서 con이 보문소나 전치사나 여부에 상관없이 con-AC 밖으로의 이동은 부가어 섬 제약위반으로 설명이 가능할 듯하다. 그러나 Suñer(1988)에 따르면 모든 con-AC가 부가어로 기능하지는 않는다. 아래 예를 살펴보자.

- (63) a. Mi empresa está *con el agua al cuello*.

- b. *Mi empresa está.
 - c. Mi empresa lo está.
- (Suñer 1988:97)

부가어는 생략되더라도 문장의 문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데 위의 예에서는 con-AC가 생략되면 비문법성이 초래된다는 점에서 위 예에서 con-AC는 부가어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잘 알려져있다시피 스페인어 계사구문에서 주어에 대한 서술보어는 클리틱 *lo*로 대체될 수 있다.

- (64) ¿Es Juan *simpático*? - Sí, **lo** es.

(63a,c)에서 보듯이 con-AC도 *lo*로 대체될 수 있다는 사실은 (63a)에서 con-AC는 부가어가 아닌 서술보어로 기능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Suñer(1988:101)는 con-AC도 두 종류가 있다고 주장한다. 즉, 진정한 부가어로 기능하는 것과 주절 내의 주어 또는 목적어에 대한 서술보어 역할을 하는 것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근거로 두 가지 사항을 제시한다. 첫째, (65)와 (66)의 대조에서 보듯이 부가어 역할을 하는 con-AC는 출현 위치가 자유로운 반면에 서술보어인 con-AC는 문두에 출현하면 문법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 (65) a. *Con Ayrton Senna detrás*, Nigel Mansell debe andarse con ojo avizor.
 b. Nigel Mansell debe andarse con ojo avizor, *con Ayrton Senna detrás*.

- (66) a. Me devolvió el paraguas *con una varilla rota*.
 b. **Con una varilla rota*, me devolvió el paraguas.

둘째, 대등접속은 동일범주 또는 범주가 다르더라도 동일 기능을 수행하는 요소들끼리 가능하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듯이 두 con-AC끼리 대등접속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두 con-AC가 서로 다른 유형임을 시사한다.

- (67) a. *Los secuestradores salieron *con los brazos en alto y con toda la policía rodeando el edificio*.
 b. *Me recibirán *con los brazos abiertos y con Luis a mi lado*.

이처럼 con-AC는 부가어 역할 이외에 서술 보어 기능도 수행할 수 있으므로 con-AC 밖으로 주어의 *qu*-이동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자 할 때 con-AC가 서술 보어로 기능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어 섬 제약’을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con-AC가 부가어로 기능하느냐 서술 보어로 기능하느냐 여부에 상관없이 절 밖으로의 이동이 불가능한 사실을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con을 보문소로 분석하면 둘을 ‘보문소-흔적 여과’ 위반으로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아래 예문의 문법성이 보여주듯이 영어와 달리 이탈리아어, 스페인어와 같은 영주어 언어(null subject language)에서는 ‘보문소-흔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cf. Rizzi 1982).

- (68) *¿Quién crees que vendrá hoy?*

본고의 주장처럼 con도 보문소라면 con이 보충어로 취하는 소절 밖으로 주어가 *qu*-이동할 경우 (68)처럼 정문이 되어야할 것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듯이 이동은 비문법성을 낳는다.

- (69) a. Dormí con la ventana abierta.
 b. Dormiste con qué abierta?
 c. *¿*Qué* dormiste con [*t* abierta]?

- (70) a. Juan es feliz con María a su lado
 b. Juan es feliz con quién a su lado?
 c. *¿*Quién* es Juan feliz con [*t* a su lado]?

Rizzi(1982)는 (68)과 같은 예문에서 ‘보문소-흔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영주어 언어는 평서문의 주어가 동사 뒤로 후치될 수 있다는 사실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68)이 ‘보문소-흔적 효과’를 보여주지 않는 이유는 내포절 주어가 보문소 *que* 바로 뒤 위치 즉, [Spec,TP]에서 주절로 *qu-*이동을 한 것이 아니라 (71b)처럼 동사 후 위치에서부터 이동했기 때문에 ‘보문소-흔적’ 형상(configuration)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보문소-흔적 여과’를 위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²⁴⁾

- (71) a. ¿*Quién*_i crees que *t*_i vendrá?
 b. ¿*Quién*_i crees que *pro*_i vendrá *t*_i?

한편, 아래에서 보듯이 스페인어는 시제절 뿐만 아니라 소절의 주어도 술어 뒤에 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²⁵⁾

- (72) a. Considero [inteligente *a Juan*]
 b. Considero [*a Juan* inteligente]
 (73) a. Juzgo [*tu propuesta* muy original]
 b. Juzgo [muy original *tu propuesta*]

24) 영주어 언어라도 보문소 바로 뒤에서 의문사 이동이 일어나 ‘보문소-흔적’ 형상이 만들어지면 비문이 된다. 아래 포르투갈어 예문에서 보듯이 이동이 동사 앞에서 일어나느냐 동사 뒤에서 일어나느냐에 따라 문법성의 대조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보문소-흔적 효과’ 부재 예문에 관한 Rizzi(1982)의 분석을 뒷받침한다 하겠다.

(i) a. Que rapazes, o Paulo desconfia que ec gostem [todos *t*_i] de Maria? (Portuguese)
 b. *Que rapazes, o Paulo desconfia que [todos *t*_i,] gostem *t*_i de Maria?
 ‘Which boys, Paulo suspects that (*all) like (like) Maria?’
 (Menuzzi 2000:29)

25) Jiménez-Fernández & Spyropoulos(2013:187-188)에 따르면 소절 내의 어순도 시제절과 마찬가지로 정보구조(information structure)의 영향을 받는다. 즉, 소절의 주어가 주제(topic)일 경우에는 술어에 선행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초점(focus)이면 술어에 후행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한다.

(i) A: ¿A quién considera muy lista?
 B: Considero muy lista a Susana / #Considero a Susana muy lista.
 (Foc)
 (ii) A: ¿Cómo consideras a Susana?
 B: #Considero muy lista a Susana/ Considero a Susana muy lista.
 (Top)

이처럼 소절의 주어도 술어 뒤로 후치되는 것이 가능하므로 con-AC의 con이 보문소라면 주어의 *qu-*이동이 술어 뒤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고 따라서 ‘보문소-흔적’ 형상이 만들어지지 않아 정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필자는 시제절과는 다르게 con-AC의 주어가 절 밖으로 이동하면 비문이 되는 이유는 con-AC의 경우는 주어가 술어에 선행하는 어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72)-(73)처럼 소절이 동사(*considerar, encontrar*)의 보충어일 때는 주어가 술어 뒤에 출현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con-AC의 경우는 소절의 주어가 술어에 선행하는 어순만이 가능하다는 점이다.²⁶⁾

- (74) a. Dormí [con *la ventana abierta*]
b. *Dormí [con abierta *la ventana*]

- (75) a. Con [*el niño enfermo*], no se puede trabajar.

26) 각주 25에서 보았듯이 소절 내의 어순도 정보구조의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con-AC에서는 주어가 술어 뒤에 출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격 할당(인하)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아래에서 보듯이 소절의 주어가 대명사인 경우는 사격형태를 취한다.

- (i) {Conmigo/*Con yo} enfermo, no serán capaces de hacerlo.
(Hernanz & Suñer 1999:2551)

이 사실로 미루어보아 영어에서 원형절을 이끄는 전치사적 보문소 *for*처럼 전치사적 보문소 *con*이 격을 ECM 방식으로 주어에 사격을 부여(인하)하고 이를 위해서는 *con*과 소절 주어 사이에 인접성(adjacency)이 요구되기 때문에 주어가 술어 뒤로 후치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야할 것이다.

물론 *con*이 보문소이긴 하지만 전치사에서 재범주화된 까닭에 이 과정에서 남아있는 전치사의 특성 때문에 자신의 바로 뒤에 있는 명사와 분리될 수 없고 이로 인해 con-AC의 주어가 술어 뒤로 후치될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Con [*mi primo Pepe (como/de) diputado*], toda la familia espera recomendaciones.”(Suñer 88:86)”와 같은 예에서 보듯이 서술어가 명사인 경우에도 주어-술어 도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 (ii) *Con [*diputado mi primo Pepe*], toda la familia espera recomendaciones.

이처럼 명사 술어가 전치된 경우 *con* 바로 뒤에 명사가 출현하지만 여전히 비문법적이다. 그 이유는 여기서 명사 술어는 격을 받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con-AC에서 주어가 술어에 선행해야하는 것은 *con*이 명사와 분리될 수 없기 때문보다는 주어 DP가 후치될 경우 *con*이 인접성 하에서 DP에 격을 할당할 수 없게 되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더 나을 듯하다.

- b. *Con [enfermo *el niño*], no se puede trabajar.
(de Miguel 1992, López 1994:71에서 재인용)

이처럼 con-AC에서는 소절의 주어가 술어에 선행하는 어순만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con-AC 밖으로 주어가 *qu-*이동하고자 할 때 이동은 아래에서처럼 술어 앞 위치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보문소-흔적 여과’를 위반하는 형상을 낳게 된다. con-AC가 부가어로 기능하던 아니면 서술 보어로 기능하던 상관없이 소절 밖으로 주어가 *qu-*이동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 (76) *¿*Qué* duermes [CP con [IP *t* abierta]]? (‘보문소-흔적 여과’ 위반 형상)

IV. 결 론

스페인어에는 두 유형의 AC가 존재한다. 하나는 ‘술어-주어’ 어순의 AC이고 다른 하나는 ‘con-주어-술어’ 어순의 AC이다. 본고의 연구 대상은 두 번째 유형의 AC이다. 전형적인 전치사 con은 ‘수반’, ‘결부’ 또는 ‘도구’의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con-AC의 con은 이러한 의미가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본고에서는 con-AC의 con이 전치사가 아닌 다른 범주에 속할 가능성을 연구해 보고자 하였다.

본고의 조사에 따르면 스페인어 권에서 AC 및 con-AC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절 내부의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에 관심을 집중한 탓에 con의 통사 범주가 무엇인냐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다시피 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영어의 with-AC 구문에서 with의 범주가 무엇인지를 둘러싼 일부 학자들의 논쟁을 참고로 하여 con의 범주적 실체에 다가가고자 하였다.

임창국(2007)은 영어가 전치사 분리(preposition stranding)를 허용하는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with-AC에서 with 바로 뒤의 명사가 앞으로 *wh-*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해 그 이유는 with가 전치사가 아니라 보문소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즉, with를 보문소로 보면 with 바로 뒤의 명사가 *wh-*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를 ‘보문소-흔적 여과’(Rizzi 1982) 위반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김성욱(2008)은 임창국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with는 여전히 전치사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며 with 바로 뒤의 명사가 *wh*-이동할 수 없는 이유는 with-AC가 부가어 기능을 수행한다는 사실과 관련이 깊다고 주장한다. 즉, ‘부가어 섬 제약’에 따르면 부가어절 밖으로는 어떠한 요소도 이동할 수 없으므로 with-AC 밖으로 소절의 주어가 이동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 제약을 위반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본고에서는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 con-AC를 이끄는 con의 범주적 정체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절을 보충어로 취하느냐의 여부, 생략 가능성 여부, 의미적 역할 여부, 반의어 존재 유무 등과 같은 논의를 통해 전치사 보다는 보문소(전치사적 보문소)로 분석하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하였다.

끝으로 con-AC 밖으로 주어의 *qu*-이동이 불가능한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제시하였다. 첫째, con-AC가 부가어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김성욱(2008)의 주장처럼 ‘부가어 섬 제약(Adjunct Island constraint)’ 또는 ‘적출 영역 조건(Condition on Extraction Domains)’ 위반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 con-AC가 서술보어로 기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동이 불가능한 사실을 설명하고자 할 때 이러한 제약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둘째, 본고의 주장처럼 con을 보문소로 분석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스페인 어에서 보문소 *que*가 이끄는 시제절 밖으로 주어가 *qu*-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con-AC의 con도 보문소라면 소절 밖으로 주어의 *qu*-이동이 가능해야 할 것으로 예측되나 실제로는 불가능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고에서는 *que*-시제절이 보여주는 ‘어순의 유동성’과 con-AC가 보여주는 ‘어순의 고정성’ 차이에 주목하였다. 시제절의 경우는 주어가 술어(동사) 뒤로 후치될 수 있기 때문에 주어가 시제절 밖으로 *qu*-이동할 때 Rizzi(1982)의 분석처럼 술어 뒤 위치에서부터 이동할 수 있어서 ‘보문소-흔적 여과’ 위반을 피할 수 있지만 con-AC에서는 주어가 술어 뒤로 후치될 수

없고 오직 주어와 술어에 선행하는 고정된 어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어의 *qu-*이동은 술어 앞 위치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이러한 이동은 ‘보문 소-흔적 여과’를 위반하는 형상을 초래한다고 설명하였다.

참고문헌

- 김성욱(2009), 「with-절대구문에서의 with의 범주」,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Vol 8, No. 1, pp. 161-177.
- 김영현(1994), 「With 절대 구문의 통사구조 분석」, *영어영문학*, Vol. 1, No. 9, pp. 365-389.
- 김종명(2014), 「프랑스어의 Il y a une place de libre 유형 구문 연구 : [de + 형용사(구)] 문 요소를 지닌 구문들에 대한 통합적 분석」, *불어문화권 연구*, Vol. 24, pp. 175-218.
- 손경애(1999), 『불어문법』, 형설출판사.
- 유은정(2004), 「스페인어 절대구문 연구」, *스페인어문학*, Vol. 30, pp. 107-120.
- 유은정(2013), 「스페인어 절대구문의 최소주의적 분석」, *언어과학연구*, Vol. 67, pp. 163-184.
- 임창국(2007), 「영어 with-절대구문에서의 with의 통사범주에 대한 소고」, *영어학*, Vol. 7, No. 1, pp. 159-170.
- Aarts, Bas(1992), *Small Clauses in English: The Nonverbal Types*, Berlin - New York: Mouton de Gruyter.
- Beukema, Friz & Teun Hoekstra(1984), “Extraction from WITH-Constructions”, *Linguistic Inquiry*, Vol. 15, No. 4, pp. 689-698.
- Bowers, John(1993), “The syntax of Predication”, *Linguistic Inquiry*, Vol. 24, No. 4, pp. 591-656.
- Brovetto, Claudia(2002), “Spanish Clauses without Complementizer”, *Current Issues in Romance Languages*, T. Satterfield, C. Tortura & D. Cresti(ed.),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 Publishing Company, pp. 33-45.
- Bosque, Ignacio & Javier Gutiérrez-Rexach(2009), *Fundamentos de Sintaxis Formal*, Madrid: Akal.
- Bruno, James(2011), “Absolute Constructions: Telicity, Abstract Case, and

- Micro-variation”, Luis A. & Ortiz-Lopez(ed.), *Selected Proceedings of the 13th Hispanic Linguistics Symposium*, MA: Cascadilla Proceedings Project, pp. 264-274.
- Cantero, Manuel(2009), “The Syntax of Spanish Prepositional Finite clauses in a Historical and Crosslinguistic Perspective”, Doctoral dissertation, Ohio State University.
- Chomsky, Noam(1986a), *Knowledge of Language: Its Nature, Origin and Structure*, New York: Praeger.
- Cinque, Guglielmo(1995), *Italian Syntax and Universal Grammar*, C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lmi, Gréte(2005), “The Role of Agreement in Non-finite Predication”, Amsterdam: John Benjamins.
- De Miguel, Elena(1992), *El Aspecto en la Sintaxis del Español: Perfectividad e Impersonalidad*, Madrid: Ediciones de la Universidad Autónoma de Madrid.
- den Dikken, Marcel(2006), *Relators and linkers: The Syntax of Predication, Predicate Inversion, and Copulas*, Cambridge, MA: MIT Press.
- Dubinsky, Stanley & Kemp Williams(1995), “Recategorization of Prepositions as Complementizers: the Case of Temporal Prepositions in English”, *Linguistic Inquiry*, Vol. 26, No. 1, pp. 125-137.
- Eun-Jung, Yoo(2008), “English Absolutes, Free Adjuncts, and WITH: A Constructional Analysis”, *Language and Information*, Vol 12, No. 2, pp. 49-75.
- Fernández-Leborans, María(1995), “Sobre Construcciones Absolutas”, *Revista Española de Lingüística*, Vol. 2, No. 2, pp. 365-395.
- Ferrell, Patrick(2005), “Prepositional small clauses in English: A dual-category analysis”, *Morphology and the Web of Grammar*, Orhan Orgun & Peter Sells(ed.), Standford:CLSI, pp. 1-20.
- Gunnarson, Kjell-Ake(1994), “Small Clauses and Absolute Constructions in Spanish”, *Probus*, Vol 7, pp. 125-171.
- Haïk, Isabelle(2013), “Symmetric Structures”, *Corela*, Vol. 11, No.1, pp. 1-26.
- Hantson, André(1992), “Case Assignment and BE-deletion in Non-finite clauses”, *Belgian Journal of Linguistics*, Vol. 7, pp. 55-94.

- Haegeman, Liliane & Jacqueline Guéron(1999), *English Grammar: A Generative Perspective*, Oxford: Blackwell.
- He, Qingshun & Yang, Bingjun(2015), *Absolute Clauses in English from the Systemic Functional Perspective*, Berlin: Springer.
- Hernanz, M. Lluisa(1991), “Spanish Absolute Constructions and Aspect,” *Catalan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Vol. 1, pp. 75-128.
- Hornstein, Norbert & David Lightfoot(1987), “Predication and Pro”, *Linguistic Inquiry*, Vol. 63, pp. 23-52.
- Jiménez-Fernández, Ángel & Vassilios Spyropoulos(2013), Feature Inheritance, VP Phases and the Information Structure of Small Clauses, *Studia Linguistica*, Vol. 67, No. 2, pp. 1-40.
- López, Luis(1994), “The Internal Structures of Absloute Small Clauses”, *Catalan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Vol. 4, No.1, 45-02.
- Marín, Rafael(2002), “De Nuevo sobre Construcciones Absolutas”, *Círculo de Lingüística Aplicada a la Comunicación*, Vol. 10, pp. 1-17.
- McCawley, James K.(1983), “What’s with with?” *Language*, Vol. 59, pp. 271-287.
- Menuzzi, Sergio(2000), “That-trace Effects in Portuguese”, *Fórum Lingüístico*, Vol. 2, pp. 13-39.
- Pavón, Lucero(1999), “Clases de Partículas: Preposición, Conjunción y Adverbio”, I. Bosque & V. Demonte(ed.), *Gramática Descriptiva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Espasa, pp. 565-656.
- Pérez Jiménez, M. Isabel(2006), “La Gramática de las Cláusulas Absolutas de Predicación en Español,” Doctoral Dissertation, Instituto Universitario de Investigación Ortega y Gasset.
- Radford, Andrew(1988), *Transformational Grammar: A First Course*, C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adford, Andrew(1997), *Syntactic Theory and the Structure of English: A Minimalist Approac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eal Academia Española(2010), *Nueva Gramática de la Lengua Española(Manual)*, Madrid: Espasa.
- Riehmann, Susanne. & Emily Bender(1999), “Absolute Constructions: On the Distribution of Predicative Idioms”, *WCCFL 18 Proceedings*, pp. 476-489.
- Rigau, Gemma(1999), “La Estructural del Sintagma Nominal”, *Gramática*

- Descriptiva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Espasa, pp. 311-362.
- Rizzi, Luigi(1982), *Issues in Italian Syntax*, Dordrecht: Foris Publications.
- Siegal, Muffy(1983), “Problems in Preposition Stranding”, *Linguistic Inquiry*, Vol. 14, No. 1, pp. 184-188.
- Stowell, Tim(1981), “Origins of Phrase Structure”, Doctoral Dissertation, Massachusetts: MIT.
- Stowell, Tim (1983), “Subjects across Categories”, *The Linguistic Review*, Vol. 2, pp. 285-312.
- Stump, G.T.(1985), *The Semantic Variability of Absolute Constructions*, Dordrecht: Reidel.
- Suñer, Avelina(1988), “Sujetos con preposición”, *Estudi General*, Vol. 8, pp. 81-112.
- Suñer, Avelina & María Lluïsa Hernanz(1999), “La Predicación: la Predicación No Copulativa. Las Construcciones Absolutas”, Violeta Demonte & Ignacio Bosque(ed.), *Gramática Descriptiva de la Lengua Española*, Vol. 2, pp. 2525-2560.
- Torrego, Esther(1983), “More Effects on Successive Cyclic Movement”, *Linguistic Inquiry*, Vol. 14, No. 3, pp. 561-565.

심 상 완

단국대학교
pablo@dankook.ac.kr

논문투고일: 2018년 08월 07일
심사완료일: 2018년 12월 18일
게재확정일: 2018년 12월 18일

A Study on the Syntactic Category of 'CON' in the 'CON-DP-predicative XP' Absolute Clauses

Sangwan Shim

Dankook University

Shim, Sangwan(2018), "A Study on the Syntactic Category of 'CON' in the 'CON-DP-predicative XP' Absolute Clauses", *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29(3), 165-203.

Abstract There are two types of absolute clauses in Spanish. One has the form [XP-DP], in which DP functions as the subject of the predicate XP, and the other one has the form [con-DP-XP].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syntactic category of 'con' of the second form. In the literature most previous studies on absolute clauses have focused mainly on the internal structure of the form [XP-DP] and have paid little attention to the issue of what the syntactic category of 'con' of the second form is. Most researchers have just treated it as a preposition. However, the fact that 'con' of the second form does not show the typical meanings of the preposition 'con' such as 'comitative', 'associative' or 'instrumental' makes us wonder if it is a preposition. Thus, I attempt to study the possibility that it belongs to a syntactic category other than prepositions. I claim that it is better to analyze it as a prepositional complementizer and provide some discussions to support my argument. Finally, I try to answer a problem that may be raised when we analyze 'con' as a complementizer. The *qu*-movement of the subject out of the 'con'-absolute clauses triggers the so called 'comp-trace' effect. I claim that this effect is closely related to the fact that only the order in which the subject precedes the predicate is allowed in 'con'-absolute clauses. Therefore, the movement of the subject out of the 'con'-absolute clauses has to take place immediately behind the complementizer 'con' and, as a result, violates the 'comp-trace filter'.

Key words Absolute clause, Small clause, Preposition, Prepositional Complementizer, Comp-trace effect